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3~4/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영화스님의 선명상	영화 스님	운주사	6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2	어싱: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7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3	육조단경	청화 역주	광륜출판사	8	인생수업(잘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법륜/유근택 그림	휴
4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9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5	전심법요완릉록(선전총서8)	황벽희운/정운 강설	운주사	10	테라가타(1)장로게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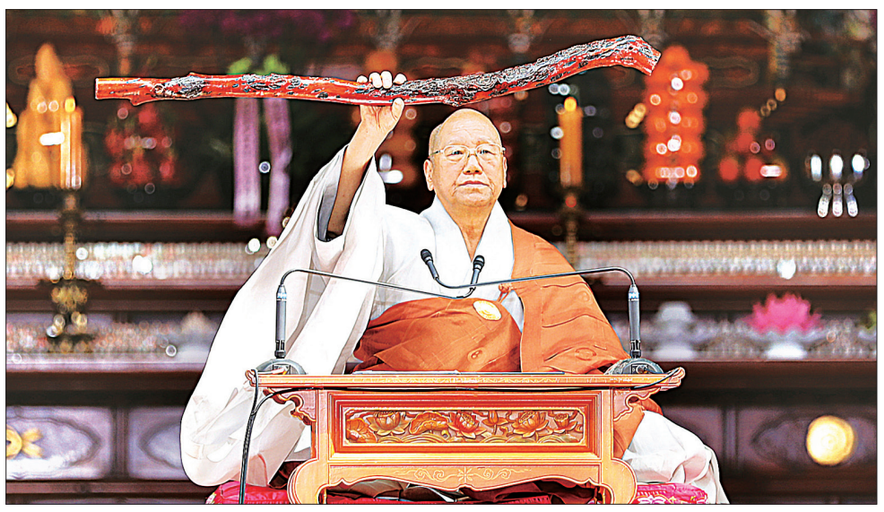
책세상

“마음의 근본고향을 알면 우주가 한몸”



인천안목
진제 스님 법어
매일경제신문사
2만1000원

진제 대종사가 설한 법문들 망라
안거부터 신년 · 봉축 법어 담겨
선수행 통한 ‘참나 찾기’ 강조해



조계종 종정을 역임하던 당시 진제 대종사가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어떤 스님이 아주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거나 발로 밟지도 않고 오직 입으로만 매달려 있는데 때마침 나무 밑을 지나가던 스님이 물었다.

“달마 스님이 서역에서 중국으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답을 하자니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몸이 박살날 것이고, 가만히 있으려니 묻는 이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러한 때를 당해서 어찌할까.

이는 ‘향엄상수화(香嚴上樹話)’라는 화두로, 중국 당나라 향엄 선사의 법문이기도 하다. 조계종 제13·14대 종정을 지낸 진제 법원 대종사는 이 화두를 타파하는데 2년 5개월간 매진했고, 어느날 새벽 홀연하게 타파했다. 그 후 진제 대종사는 33세의 나이에 향곡 스님에게 법을 인가 받아 ‘경허-혜월-운봉-향곡’으로 전해진 법맥을 이은 선지식이 됐다.

이후 진제 대종사는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을 역임하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조계종 종정으로 대중을 제접하며 정법을 전하는데 매진했다. 지금도 부산 해운정사와 남해 성담사에서 출재가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인천안목〉은 진제 대종사가 종정을 역임할 당시 대중들에게 전한 법문을 망라한 법문집이다. ‘남진제 북송담’이라 불리며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사인 진제 대종사가 평생 참선을 지도하면서 세상을 향해 던진 깨달음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진제 대종사는 물질 우선의 가치관으로 갈등과 경쟁이 심화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과 좌절을 주지만 누구도 이 아픔을 보듬고 위무해 주지 못하는 이때, 개개인 스스로가 바깥으로 치닫는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 자성을 밝히는 법에 대해 가르침을 준다. 간절한 각오로 참나를 찾아서 화두를 참구하면 누구나 진리의 문에 들어가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되며, 평화와 행복은 내면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진제 대종사가 이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안내하고자 하는 길은, ‘참성품’에서 더 나아가 ‘참나’를 찾게 하는 데 있다. 우리는 그 길을 세상사를 등진 ‘출가자’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흔히 ‘수행’이라고 부르면서, ‘고행’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진제 대종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참다운 수행’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제 대종사가 설하는 법문에는 간화선을 수행하는 자세부터 화두까지 세세하게 설명돼 있다.

“참선은 앉아서 익히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먼저 좌선을 익히도록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좌복 위에 반가부좌를 하고 앉아 허리를 곧게 하고 가슴을 편 다음 두 손은 모아서 배꼽 밑에 다 붙입니다. 눈은 2미터 아래에다 화두 생각을 두고 응시하되, 혼침과 망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눈을 뜨고 의심에 몰두해야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무르익어지고 나면, 일상생활 속에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일을 하나, 산책을 하나, 잠을 자나 오매불망 간절히 화두의심에 몰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천번 만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 하고 오매불망 의심을 쭉 밀고 또 밀고 또 밀 것 같으면 모든 산란심이 일어날 틈이 없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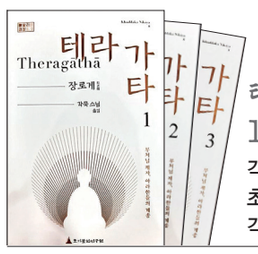
–63쪽 ‘간화선 수행법’ 중

진제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말한다. 눈 밝은 지도자를 만나서 바른 지도를 받아 일상생활 속에서 바르게 참구해 나간다면, 누구든지 잃어버렸던 ‘참나’를 찾게 돼 모두가 영원히 꿈꾸는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는 참다운 삶을 살게 된다고. 그런 깨달음의 안목도 진제 대종사는 이렇게 전한다.

“마음의 근본고향을 바로 알아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되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나’라는 허상이 다 사라져 온 인류가 한 가족이요, 온 우주가 나와 함께 한 몸이 되어 버립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남보다 더 가지려는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자연과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 항상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마음은 허공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태양보다 밝습니다. 이 마음을 닦아 참나를 깨달으면 그곳에는 시비도 없고, 분별도 없고,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고 오직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합니다.”

–263쪽 ‘국제무차수륙천대법회 법어’ 중

259장로가 설한 1279게송 망라하다



테라가타 1·2·3
각묵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각권 3만5000원

〈테라가타(Theragatha)〉는 초기 불교 경전인 〈쿳다카 니카야(Kuddaka-nikaya)〉 제8경에 속하는 경전이다. 〈테라가타〉는 문자 그대로 ‘장로들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는 〈장로게경〉으로도 알려져 있다.

부처님의 원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빠알리 삼장의 한글 완역을 발원하며 2002년에 설립된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 스님)에서 〈테라가타〉를 전3권으로 번역·출간했다.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이 번역한 〈테라가타〉는 부처님의 직계제자 장로 259명의 게송 1279개를 담고 있다.

초기불전연구원의 〈테라가타〉는 ‘하나의 모음’부터 ‘큰 모음’까지 21개의 모음으로 구성돼 있다. 제1권은 해제를 포함해 하나의 모음에 속하는 120개의 게송을 담았으며, 제2권은 둘의 모음부터 열넷의 모음까지 552개의 게송을 담고 있다. 제3권은 열여섯의 모음부터 큰 모음까지 607개의 게송을 담고 있으며 찾아보기와 참고도서 등도 수록됐다.

550~600년경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담마빨라 스님이 지은 〈테라가타 주석서〉를 중시한 것도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장로 259명을 분석해 출신과 계급, 출가 동기, 출가 연령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또한 제1권 529개, 제2권 850개, 제3권 748개의 풍부한 주해들도 게송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각묵 스님은 1979년 화엄사 도광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82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를 수지했다. 7년간 제방 선원에서 안거 후 인도 뿌나대학에서 10년간 수학했다. 현재 실상사 한주로 주석 중이다.

신중일 기자

반야부 경전 역경 불사 첫 발 내딛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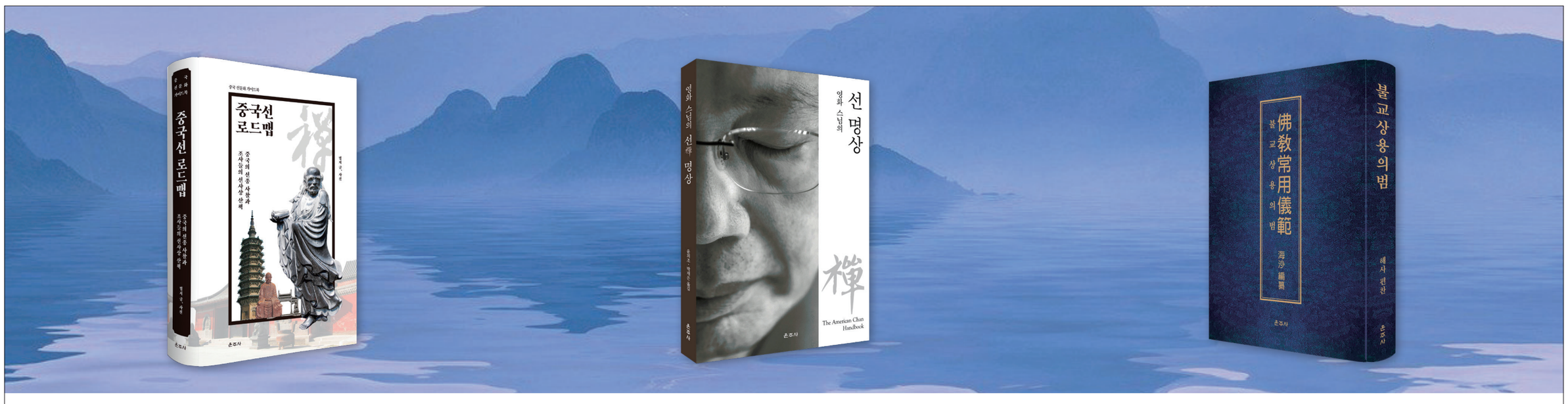


마하반야바라밀다경 1
보운 스님 옮김
도서출판 혜안
4만8000원

대승불교문화권인 한국의 불자들에게 단연 가장 익숙한 경전은 〈반야심경〉과 〈금강경〉이다. 두 경전의 공통점은 모두 반야부의 경전이라는 점이다. ‘반야(般若)’는 불교에서 말하는 제법의 이치를 확실하게 꿰뚫어보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식과는 구별해 종교적이고 초월적인 지혜를 말한다. 대승불교의 보살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행의 수행법인 10바라밀 중에서, 반야바라밀은 다른 아홉 가지의 바라밀을 완성시키는 근거가 된다. 이 반야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마하반야바라밀다경’인데, 모두 600권으로 결집됐다. 이를 한자 260자로 짧게 요약한 경전이 잘 알려진 〈반야심경〉이고, 제577권의 내용을 따로 편집한 경전이 〈금강경〉이다.

이에 대해 역자 보운 스님은 “우리나라 사부대중들은 ‘반야’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일반 대중들도 이 단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그러나 반야가 무슨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고, 이 가르침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가의 관점에 대하여 깊이 논의하고 반야의 사상을 유통하는 사부대중은 매우 드물다”면서 “법성(法性)을 찾아가는 수행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논장과 율장을 번역하였고 의궤를 찬집하면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으나, 출가하면서 아스라이 발원했던 〈마하반야바라밀다경〉을 번역하겠다는 발원은 지금 생(生)의 과업으로 남아있다”고 다짐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중국의 선종 사찰과 조사들의 선사상을 찾아서!
중국선 로드맵
선종 초조 달마대사부터 허운선사에 이르기까지 역대 조사들이 머물던 사찰의 역사와 현황, 선사상을 정리해 놓은, 한권으로 만나는 ‘중국선종사’이다.
법지 글, 사진/신국판/양장/496쪽/값 33,000원

혼자 명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
영화 스님의 선 명상
초심자를 위해 기초적인 앉는 자세부터 경험 있는 수행자를 위한 기본 마음가짐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명상 안내서이자 지침서’이다.
영화 스님 지음, 윤희조, 박재은 옮김/신국판변형/무선/244쪽/값 15,000원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설행하는 재 의식 총망라!
불교상용의범
조석예불과 사시마지, 각단 예경의식, 천도재나 각종 재회 시 설행되는 제반의식문, 각단에 올리는 불공의식문, 각종 시식과 영반 등 누구나 편리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편찬!
해사 편찬/사륙배판/양장/696쪽/값 5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